# ‘열암곡 부처님 세우기’ 천일기도 계속된다

**1월 21일, 천일기도 1차 회향**
**미래본부, 환풍 스님에 공로패**
**2028년 10월 28일까지 2차 기도**
**“새로운 천년 이루겠다는 발심”**

경주=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천일기도 1차 회향 및 2차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차 회향 및 2차 입재를 알리는 법회가 1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어진 천일기도의 원만 회향을 기념하고, 1월 22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계속될 제2차 천일기도의 새출발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미래본부에 따르면 1000일 동안 이어진 기도법회에는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210여 개 사찰과 단체에서 스님과 불자 2만5000명이 동참했다.

강추위가 몰아친 날씨에도 이날 회향법회에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사무국장 혜오 스님, 기도법사 단장 환풍 스님, 기도법사 선우·귀종 스님,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신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감 스님은 회향사에서 “1000일 전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천년 동안 누워 계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 국민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기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루겠다는 발심을 했다”고 회고하며 “천일기도 1차 회향과 2차 입재를 통해 2007년에 기적적으로 이 땅에 나투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주 남산에는 1000년 전 신라인들이 부처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있다”면서 “불국토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원력과 의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감동을 전했다. 이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엎드려 있는 부처님을 바로 일으켜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일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2023년부터 단장 소임을 맡아 천일기도를 이끌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점을 치하했다.

환풍 스님은 “천일기도는 수많은 불자들의 간절한 원력과 수행이 쌓인 여정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2차 천일기도 또한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큰 서원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일 동안 기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쓴 미래본부 종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추연 조계종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대표로 낭독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발원문’에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불제자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 달라”고 서원했다.

한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통일신라 시대 8세기 말 조성된 것으로 높이 약 5.6m, 무게는 8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부처님 코끝과 바닥의 거리가 불과 5cm에 불과한 상태에서 상호가 온전히 보존돼 ‘5cm의 기적’으로 불리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과 함께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천일기도와 모의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관음종, 스리랑카 오지 학교에 자비의 손길

**1월 17일 가와라기리야 학교**
**‘다문화 포교’ 선포 후 첫 행보**


관음종은 1월 17일 스리랑카 가와라기리야 공립 종합학교에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창종 60주년을 맞아 ‘다문화 포교 확대’ 비전을 선포한 관음종이 첫 해외사업으로 스리랑카 오지 학교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관음종은 1월 17일 스리랑카 가와라기리야 공립 종합학교에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성 관음사 주지 보상 스님,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여 스님, 의령 반야사 주지 원공 스님,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한 불자 성지순례단과 현지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야생 소가 살던 언덕(Gawaragiriya)’이라는 이름의 유래처럼 험준한 산간 오지에 위치한 가와라기리야 공립 종합학교는 1908년 설립돼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리적 한계로 인해 해외 국가와의 교류나 지원은 118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관음종의 지원이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 당시 스리랑카 불교 아스기리야파 아난다 부종정 스님이 방한해 축사를 전하며 맺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관음종 측은 이날 학생 200여 명을 위해 △학용품 및 과자 △컴퓨터 및 프린터 △도서 보관용 책장 등을 전달했으며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돕기 위한 악기 수리비도 함께 전했다.

보상 스님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담마끼띠 스님은 “나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정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가와라기리야의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측은 코코넛 기름 등불 점등식과 축하 공연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모인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계의 민간 외교의 장으로서 큰 의미를 남겼다. 송종원 관음종 사무국장은 “작은 후원이지만 갈고 닦아 큰 인물이 되어 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자가수 김소유와 배아현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유 홍보대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배아현 홍보대사.

# 조계종복지재단 홍보대사 김소유·배아현

**1월 19일, 불자가수 2명 위촉**
**“불교사회복지 가치 알리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1월 1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2026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불자가수 김소유와 배아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국민들에게 친근한 불자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재단 활동과 불교사회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비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김소유 홍보대사는 2024년 홍보대사로 위촉돼 현재까지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복지지설 자비나눔 방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등 재단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비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배아현 홍보대사는 2년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비나눔 연탄봉사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긴급모금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변함없이 재단과 함께 해 준 김소유, 배아현 홍보대사와 늘 함께해 주는 팬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면서 “두 홍보대사가 자부심을 갖고 불교사회복지와 자비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 선원수좌회, ‘다비문화 계승 보험’ 도입

**선우HK와 업무협약 체결**
**흥국생명 ‘해탈다비보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다비문화 개선과 현대적 계승을 위해 흥국생명과 손잡았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23일 영천 은해사 운부암에서 흥국생명 보험 판매법인 ㈜선우HK(대표 박채원)와 ‘다비문화 계승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국선원수좌회는 흥국생명의 ‘해탈다비보험’을 알리고 보급하며, 흥국생명은 스님들의 입적 시 보험제도를 통해 다비의식 집행에 힘을 보탠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환경 스님은 “수행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수행의 완성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며 “다비는 단순한 육신의 처리가 아니라 수행자의 청정성과 생사관을 드러내는 거룩한 불교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가가 주체가 되어 다비의 본질을 지키고,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채원 선우HK 대표는 이번 협약이 ‘문화 계승’에 방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목소리는 전통을 지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었다”며 “이번 협약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돕고, 결과적으로 사찰의 부담을 덜어 전통 다비문화가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불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조계종과 흥국생명은 ‘불교 제례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전국선원수좌회가 앞장서서 스님들의 ‘장례복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창종 30주년 기념 대법회

서른 해의 구도(求道), 다시 피어나는 전법의 꽃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가 정법의 등불을 밝힌 지 어느덧 서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 100년의 한국불교를 새롭게 설계하고자, 아래와 같이 ‘창종 3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여정에 따뜻한 격려와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일시_ 2026. 3 . 8 (일) 오전 10시

장소_ 성보촌 유스호스텔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상무로 377

문의_ 봉행위원장 혜덕 010-3936-9511
총무국장 010-7557-5802



주최 _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 주관)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봉행위원장 혜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봉행위원회

후원 _ KBB한국불교방송 / KBB한국불교신문 / 에스민스튜디오 / 현대불교신문 / 문경매일신문 / 한국불교불자총연합천불회